

노인의 죽음불안과 별-파도
그림 반응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lderly's Anxiety Towards Death
and their Reactions to the Star-Wave Drawing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교 수 최 외 선**
영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 수 박 인 전***

Dept. of Family and Housing, Yeungnam Univ.

Professor : Choi, Wae-Sun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Yeungnam Univ.

Professor : Park, In-Jeon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if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elderly people's anxiety towards death and their reactions to the Star-Wave drawing, and to verify if the Star-Wave drawing was a good enough tool to measure elderly people's degree of death anxiety. The subject for this study were 307 elderly people (male 127, female 180) over 60 years of age with no physical and cognitive damage, who were residing in Geongsan city and attending colleges or welfare centers for the ag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WIN(ver. 12.0) program, and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Chi-square test, t-test, one-way ANOVA, and Scheffé test were utilized. The results showed that factors showing different levels of anxiety towards death in the Star-Wave drawing were the total harmony of the drawing, drawing style, repetition of wave, size of the star, and location of the star. In particular, the group that drew the Star-Wave drawing with total harmony felt less anxiety towards death than the other group.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a possibility of the Star-Wave drawing to be used as a good tool that could diagnose the elderly's degree of anxiety towards death.

▲주요어(Key Words) : 노인(elderly people), 죽음 불안(death anxiety), 별-파도 그림(star-wave drawing), 반응특성(reactions)

* 본 연구는 영남대학교 2003년도 학술연구지원비에 의해
수행하였음(과제번호 : 204-A-214-002)
** 주 저 자 : 최외선 (E-mail : chois@yumail.ac.kr)
*** 교신저자 : 박인전 (E-mail : eqpark@ynu.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기술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의학의 발달과 공중보건위생의 개선으로 건강상태가 증진되었으며 사망률이 저하되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인구증가속도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우리 국가나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인인구증가가 빠르게 진행됨으로써 노인 문제가 하나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인구고령화 문제는 결코 개인이나 가정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질 사항이 아니며 사회와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중대 사안으로, 노인인구가 많아짐으로써 과거 우리사회가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다.

오늘날 노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내용은 건강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문제, 소외감과 외로움 순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통계청, 2004). 더욱이 최근 들어 노인의 자살문제가 마스크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인자살의 원인으로는 많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대부분 노인성 우울증으로 인한 것이라는 연구결과(서화정, 2005)에 비추어 볼 때, 노인인구급증과 더불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노인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을 경우, 향후 우리사회가 떠안아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은 매우 커지게 될 것이다. 결국 노인문제는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구성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 한국사회에서의 노인들은 전통가족체제와 윤리관의 붕괴와 같은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하여 심리적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고(오미나, 2002), 노년기의 외로움, 건강악화로 인한 자신감 결여, 경제적 고충, 역할상실로 인한 무력감, 사회나 가족으로부터의 고립 등은 노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으며 배우자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은 이러한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성인이면 대체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준비할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보람 있는 생을 영위하게 된다. 죽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노인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여하튼 노인세대가 젊은 세대에 비해 죽음에 대해 더 자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노인의 삶을 행복하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죽음불안을 비롯한 노인의 심리적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인간은 대체로 삶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지 않으며, 단지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저항한다할지라도 더 이상 극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죽음의 공포로 인하여 불안해하게 된다(최재건, 2005).

앞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간 성장·발달의 최종단계로 이를 '삶'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죽음에 대해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은 인간의 현재 행동뿐 아니라 향후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인식과 수용은 개인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노년기는 인간발달의 마지막 단계로서 신체적, 정신적 노화 및 그와 관련된 사회적 활동이 감퇴되어 환경의 변화와 일상생활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죽음을 가장 앞에 두고 있어 다른 연령층 보다 죽음에 대해 더욱 많이 의식하게 된다.

노인들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회상해 보며 남은 숙제를 마무리하고 주변을 정리하며 마지막 남은 시간을 좀 더 유용하게 보내고 싶어한다. 이러한 삶의 마무리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생각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강한 심리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죽음을 직면하는 과정에서 불안과 공포를 경험한다(최선화, 2004).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죽음의 압박을 더 잘 알고 있으며, 현저히 두려워하고 공허한 인생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인식하기조차 한다(조복희 등, 1998:336-338)는 것이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불안과 수용이라는 복합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타인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죽음을 수용하게 된다. 죽음불안은 죽는 과정과 죽을 때 겪어야 할 고통에 대한 두려움, 죽은 다음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을 포함한다(Hooyman et al., 2002). 노인들은 죽음 자체보다는 죽는 과정을 더욱 두려워하며, 죽어 가는 과정을 통해 겪어야 하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으로 죽음을 상징하는 모든 것을 싫어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자신의 죽음을 둘러싼 환경, 즉 그들이 죽게 될 구체적인 맥락과 상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는다(Kastenbaum, 1992:368-369).

Michael(1979)은 죽음불안을 구성하는 요소를 크게 네가지, 즉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사후 결과에 대한 공포, 타인의 죽음과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로 보았다(최재건, 2005 재인용). 서혜경(1987)은 죽음

불안을 죽음이라는 사건과 죽어가는 과정에 대해 인간이 보이는 공포, 혐오감, 파멸감, 거부, 부정 등의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심리적 과정이라고 하였고, 오미나(2002)는 죽음불안을 존재의 상실에서 오는 두려움과 죽어가는 과정에서 오는 두려움, 공포, 그리고 사후결과에 대한 불안을 포함하는 심리적 과정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인간이면 누구나 죽음과 관련한 공포나 불안 심리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죽음에 대해 불안이나 공포를 가지게 되는 근원적인 이유가 죽음이란 어느 누구도 피해 갈 수 없으며 극복할 수도 없는 필연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죽음이라는 과정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노인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매사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더 자주 하게 된다. 이처럼 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인간발달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가 말로 일생을 마무리하는 시기로, 머지않아 맞이하게 될 죽음을 수용하고 내면화하는 것이 노인의 심리적 안녕을 위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노인의 죽음을 삶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죽음준비교육 및 노년기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노인의 죽음불안해소나 죽음의 수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야말로 곧 우리 사회전체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의 죽음불안과 관련 있는 기존의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질문지검사를 통한 분석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죽음불안과 같은 보다 민감한 심리적 특성은 구조화된 질문지검사보다 오히려 비언어적인 투사검사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또한 상당수의 노인들은 문장해독능력이 떨어지거나, 시력 및 집중력 저하로 직접 기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투사검사 중 별-파도 그림검사를 활용하여 노인들의 죽음불안을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별-파도 그림 검사는 1979년 독일 심리학자 Ursula Ave-Lallemant이 개발한 투사검사로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피험자에게 연필이나 크레용을 주고 종이 위에 별-파도를 그리게 하여 무엇인가를 표현하게 하는 심리검사이다. 이것은 피험자가 느끼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망각해 버린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또한 무의식적으로 관련된 피험자의 생활 상태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간상에 나타난 부가물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면, 별 파도 이외의 그림인 바위, 섬, 보트, 천둥, 비락, 구름 등과 같은 부가적 요소는 내담자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는 긴장과 개인의 성격경향을 투사한 것으로 심층심리학에 있어서의 꿈과 이미지의 상징해석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심층심리학

에서 특히 물은 대개 무의식이나 영혼의 상징으로 이해하는데, 움직임이 있는 물로서 파도는 생명적 요소가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파도치는 듯한 파도 선은 손상입지 않은 감정의 표시로 본다. 반면, 리드미컬하게 흐르는 파도는 격한 감정의 상태를 나타내고, 약하고 원만한 파도는 감정적인 쇠약이나 우울 경향을 나타내며, 필적에 움직임이 있거나 분단된다는 것은 필적이 흐트러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내적 혼란과 장애의 징후를 나타낸다고 밝힌 杉浦京子와 鈴木康明(2000)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별-파도 그림검사가 피험자의 정신건강을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준거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별-파도 검사는 비언어적인 의식 하에서 이미지 표출과 카타르시스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한정된 시간 속에서 피험자를 이해할 수 있는 촉매역할을 한다. 또한 피험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심리적 문제와 대처방법을 정확히 고집어 낼 수 있는 심리평가 도구로서의 장점이 있지만 진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신중함이 요구된다.

별-파도 그림검사는 주로 성격진단 검사로 사용되어오고 있으나 취학 전 유아의 경우에는 발달기능 검사로도 사용 가능하다. 구체적인 과제 검사인 별-파도그림 검사는 3가지 기본요소(형, 움직임, 공간사용법)가 있다. 독일 정신과 의사 Pophal(1949)은 별 모양을 정확하게 구성하는 하나의 선은 대뇌 신피질의 뇌 기능과 관련 있고 파도를 그리는 흔들리는 동작을 나타내는 선은 소뇌에 있는 운동기능을 관찰하는 부위와 관련이 있다(杉浦京子, 鈴木康明, 2000:3)고 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들에게 익숙한 별과 파도가 주요소인 별-파도 그림 검사는 구조화된 질문지검사에 비하여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감퇴한 노인들에게 사용하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그들의 심리적 상태를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별-파도 그림 검사가 노인들이 일반적으로 직면하기를 두려워하는 죽음불안을 진단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노인들이 자신의 죽음을 수용하여 남은 여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한편, 지금까지 노인의 죽음불안에 대한 연구(김태현·손양숙, 1984; 박재현, 1990; 배찬희, 2003; 오미나·최외선, 2005; 유희옥, 2004; 임현정, 2000; 조지연, 1989; Kalish, 1976; McDonald & Hilgendorf, 1986; Templer, 1979; Thorson & Powell, 1998; Wagner & Lorion, 1984)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지만, 별-파도 그림검사에 대한 연구는 아직 탐색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임상장면에서는 진단도구로서 별-파도그림을 사용하고 있으나, 진단도구로서의 타당성을 입증해 주는 연구는 극히 드물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울과 별-파도 그림과의 관련성을 알아본 선행연구(최채욱, 2004)에서 우울 진단도구

로서 별-파도 그림 검사의 유용성을 제시한 바 있으며, 실업자를 대상으로 불안 및 자존감과 별-파도 그림 검사를 실시한 연구(이정임, 2005) 역시 자존감과 불안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투사검사로서 별-파도 그림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죽음불안을 진단하기 위해 별-파도 그림검사를 실시하여 노인들의 죽음불안과 별-파도 그림과의 관련성을 밝힘으로써 별-파도그림검사가 죽음불안을 진단하는 도구로서 유용한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성별에 따라 노인의 죽음불안 및 별-파도 그림 반응 특성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는 노인의 성과 죽음불안태도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결과들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일부 선행연구(김태현·손양숙, 1984; 유희옥, 2004)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죽음불안태도가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연구(서혜경, 1987; 오미나, 2002)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죽음불안태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죽음에 대한 태도와 성별간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McDonald & Hilgendorf, 1986)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이 자신의 개인적 성장가능성과 남은 시간을 비교하여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생산적으로 죽음을 준비하여 만족스러운 노년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죽음 준비교육 및 심리적 지지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 연구문제

별-파도그림이 죽음불안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도구로서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노인의 죽음불안 수준은 어떠하며, 이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노인의 별-파도 그림 반응특성은 어떠하며, 이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노인의 별-파도 그림 반응특성에 따른 죽음불안은 어떠하며, 이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노인대학,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경산시에 거주하는 신체적·인지적으로 손상이 없는 60세 이상의 노인 45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중 기재가 미비하거나 별 파도그림을 그리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307명(남자 127명(41.4%), 여자 180명(58.6%))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연구대상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60~65세가 48명(15.9%), 66~70세가 90명(29.8%), 71~75세가 106명(35.1%), 76세 이상이 58명(19.2%)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죽음불안 척도

죽음불안 척도는 Templer(1979)의 죽음불안 척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한 박은경(1995)의 척도(34문항)를 오미나(2002)가 노인들에게 사용하기 위해 재구성한 20문항을 본 연구에서 다시 요인분석을 통해 선별한 16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인분석 결과, 3개의 요인(총1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설명변량이 53.2%로 나타났다.

죽음불안 하위요인별 문항번호 및 신뢰도 계수는 <표 1>과 같다.

하위영역별 설명변량을 살펴보면, 죽음과정(6문항)이 19.1%, 존재상실(6문항)이 17.1%, 사후결과(4문항)가 17.0%였다. 채점체계는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아주 그렇다'(4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죽음불안척도 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87이며, 죽음과정 .81, 존재상실 .76, 사후결과 .76이었다.

2) 별-파도 그림 검사

별 파도 그림 검사(Star-Wave Test : SWT)는 Ursula Allellemant이 1978년 '별-파도 검사'로 출간한 투사검사로

<표 1> 죽음불안 하위요인별 문항번호 및 신뢰도 계수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신뢰도
죽음과정	6, 7, 8, 11, 12, 20	6	.81
존재상실	10, 14, 15, 17, 2, 3,	6	.76
사후결과	4, 5, 18, 19	4	.76
전 체		14	.87

<표 2> 별-파도 그림의 분석 기준

변 인	구 분
그림양식	요점, 회화, 감정, 형식, 상징
전체조화성	조화, 보통, 부조화
파도 운동성	있다, 없다
파도 반복성	규칙, 불규칙, 없다
파도 필압	강하다, 보통, 약하다
파도 위치	왼쪽, 중앙, 오른쪽, 전체적
별 크기	크다, 작다
별 수	1~2개, 3~4개, 5개 이상
별 위치	왼쪽, 중앙, 오른쪽, 전체적

성격진단 검사로 사용되고 있다(杉浦京子·鈴木康明, 2000:9). 별-파도 그림 검사의 실시방법은 검사용지(1mm의 폭으로 안쪽 치수 15.3×10.5cm가 되도록 검은 색의 장방형 테두리선로 인쇄함)에 “연필로 바다의 파도 위에 별이 있는 하늘을 그리시오”라고 지시하고, “별과 파도 이외의 사물을 그려도 되나요?”라는 질문에는 자유롭게 그리라고 대답한다. 그림을 다 그린 후에 성별, 그린 년 월일, 생년월일을 기입하게 한다. 시간제한은 없으나 평균 소요시간이 5~10분 정도이다. 별-파도 그림의 분석기준은 杉浦京子和 鈴木康明(2000)의 기준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노인들의 별-파도 그림에 나타난 반응특성에 맞게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기준은 <표 2>와 같다.

별-파도 그림의 항목별 채점은 검사의 신뢰성을 위해 연구자와 미술치료사 2명이 함께 채점하였다. 전체 그림 중 40명의 그림을 표집하여 3명의 채점자가 각각 채점한 결과를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이용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 채점자간의 일치도가 A와 B는 .81~.92, A와 C는 .85~.98, B와 C는 .90~.95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해석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그림양식, 공간구조, 별과 파도의 상징적 의미를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1) 그림양식

그림양식에서 요점만 있는 양식은 이성적으로 기능하는 사람으로 지시에 따라 단순하게 별과 파도만 그린 사람이다. 이는 자신의 주관적, 감정적인 경험 여부를 드러내지 않은 채 주어진 주제에 순응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회화적인 양식은 감정적인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은 사람이 보다 포괄적으로 그리는 그림으로 감정이 풍부한 경험을 내포하고 있다. 감정 양식은 회화적인 양식과 유사하나 풍부한 그림의 주요 메시지가 그림의 정서적인 내용을 통해 환기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형식적인 양식은 자신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는 사람이거나 자기를 타인에게 더 멋있게 보이려는 소망을 가진 사람의 그림으

로 도안 형식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상징적 양식은 심리적 갈등이나 마음의 상태가 상징적인 비유로 표현된 것을 말하며 상담을 필요로 하는 그림이다.

(2) 공간 구조

왼쪽 아래영역은 무의식과 관련되며, 일반적으로 물과 바다를 들 수 있고 내성, 퇴행, 부인, 죽음의 영역이기도 하다. 오른쪽 아래쪽은 보다 의식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모친, 대지, 물질, 자연의 이미지와 관련되며 안전, 기본적인 신뢰의 영역이기도 하다.

왼쪽 위 영역은 무의식과 관련되며 비개인적이고 집합적인 천상의 원형으로 정신성과 영원의 상징이다. 오른쪽 위 영역은 의식과 관련 있으며, 개인적이며 인생에 있어서의 성공,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의 상징이다. 그리고 시간적인 측면에서 왼쪽은 과거를, 오른쪽은 미래를 상징한다.

(3) 별과 파도

별은 달과 더불어 하늘에 있어서 유일한 빛으로 무지의 암흑 속을 인도하는 의식의 빛을 상징하며, 정신적인 빛을 의미하기도 한다. 파도는 움직이고 있는 물로 생명의 근원이며, 종교적으로 인간의 신체·정신·영혼의 정화와 재생을 위한 기능을 가진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은 2007년 4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자와 미술치료 전공 대학원생 5명이 실시하였다. 노인 스스로 질문지를 이해할 수 있고 직접 기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는 자기기재 방법을 택하였고, 문장해독 능력이 떨어지거나 시력의 저하로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는 조사원이 면담을 통해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12.0 Program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과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였으며, 평균과 표준편차, 교차분석, 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과 사후검증으로 Scheffé test로 통계 처리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노인의 죽음불안 수준과 성별에 따른 차이

노인의 죽음불안 수준이 어떠한지 살펴 본 결과,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노인의 죽음불안 수준은 4점 만점에 전체평균이 2.42점으로 보통 정도를 나타내었고, 하위 영역별로 보면 죽음과정(M=2.70)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사후결과(M=2.33), 존재상실(M=2.19)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죽음불안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존재상실과 사후결과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죽음과정과 죽음불안전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죽음과정은 성별($t=-2.48$,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여자(M=2.77)가 남자(M=2.60)보다 죽어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신체적인 고통, 신체적-정신적 기능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죽음불안전체 역시 성별($t=-2.27$,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자(M=2.47)가 남자(M=2.34)보다 죽음불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노인의 죽음불안 수준 N=307

구 분	M(SD)
죽음과정	2.70(.60)
존재상실	2.19(.56)
사후결과	2.33(.59)
전 체	2.42(.49)

2. 노인의 별-파도 그림 반응특성과 성별에 따른 차이

노인의 별-파도 그림 반응특성이 전반적으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살펴 본 결과, <표 5>와 같다. 즉, 그림양식에서는 요점 양식이 73.5%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회화양식 13.4%, 감정 양식 7.5%, 형식적 양식 5.6% 순이었다. 전체조화성에서는 보통이 49.3%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부조화 35.6%, 조화 15.1%로 조화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파도 운동성에서는 운동성이 있는 경우가 75.2%이며, 없는 경우가 24.8%로 나타나 대체로 운동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는 파도는 인간내부의 감정, 무의식 등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파도그림의 운동성에 따라 감정상태가 다를 수 있다. 파도 반복성에서는 파도의 반복성이 없는 경우가 46.8%로 가장 높았으며, 규칙적인 반복성이 있는 경우가 28.9%, 불규칙적인 반복성이 있는 경우가 24.3%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도의 반복성은 생명에너지의 양을 의미하는데, 파도가 반복성이 없다는 것은 피험자가 무기력함을 의미하며 반복성이 불규칙한 것은 감정기복이 심함을 나타낸다. 파도 필압에서는 보통으로 그린 경우가 57.6%로 가장 많았으며, 강하게 그린 경우(22.4%), 약하게 그린 경우(20%)의 순으로 나타났다. 파도 위치에서는 파도를 전체적으로 그린 경우가 7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앙에 그린 경우(14.5%), 오른쪽에 그린 경우(5.2%), 왼쪽에 그린 경우(3.9%)의 순으로 나타났다.

별은 지성, 정신,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별 크기에서는 별을 크게 그린 경우가 79.2%, 작게 그린 경우가 20.8%로 크게 그린 경우가 작게 그린 경우의 4배 정도 많았으며, 별 수에서는 1~2개를 그린 경우가 40.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4개가 34.5%, 5개 이상 그린 경우가 24.8%로 나타났다. 별 위치에서는 별을 중앙에 그린 경우가 46.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별을 전체적으로 그린 경우가 23%, 별을 왼쪽에 그린 경우가 19.4%, 오른쪽에 그린 경우가 11.5%로 나타났다.

별-파도 그림 반응특성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표 4> 성별에 따른 노인의 죽음불안의 차이검증

N=307

구 분	남(N=127)	여(N=180)	t값
	M(SD)	M(SD)	
죽음과정	2.60(.59)	2.77(.60)	-2.48*
존재상실	2.14(.54)	2.23(.57)	-1.38
사후결과	2.26(.54)	2.38(.62)	-1.82
전 체	2.34(.48)	2.47(.49)	-2.27*

* $p<.05$

<표 5> 노인의 별-파도 그림 반응특성

변 인	구 분	빈도(%)	변 인	구 분	빈도(%)
그림 양식	요 점	224(73.5)	파도 위치	왼 쪽	12(3.9)
	회 화	41(13.4)		중 앙	44(14.5)
	감 정	23(7.5)		오른쪽	16(5.2)
	형 식	17(5.6)		전체적	233(76.4)
전체 조화성	조 화	46(15.1)	별 수	1~2개	125(40.7)
	보 통	150(49.3)		3~4개	106(34.5)
	부조화	108(35.6)		5개 이상	76(24.8)
파도 운동성	있 다	228(75.2)	별 크기	크 다	243(79.2)
	없 다	75(24.8)		작 다	64(20.8)
파도 반복성	규 칙	88(28.9)	별 위치	왼 쪽	59(19.4)
	불규칙	74(24.3)		중 앙	140(46.1)
	없 다	143(46.8)		오른쪽	35(11.5)
파도 필압	강하다	68(22.4)	전체적	70(23.0)	
	보 통	175(57.6)			
	약하다	61(20.0)			

<표 6> 성별에 따른 노인의 별-파도 그림의 차이검증

별-파도 반응특성	구 분	성 별		전체 빈도(%)	x ² 값
		남 빈도(%)	여 빈도(%)		
파도 필압	강하다	32(25.4)	36(20.2)	68(22.4)	x ² =6.542* df=2
	보 통	62(49.2)	113(63.5)	175(57.6)	
	약하다	32(25.4)	29(16.3)	61(20.0)	
별 크기	크 다	93(73.2)	150(83.3)	243(79.2)	x ² =4.608* df=1
	작 다	34(26.8)	30(16.7)	64(20.8)	

*p<.05

알아보기 위하여 성을 독립변수로, 별-파도 그림의 하위영역(그림 양식, 전체 조화성, 파도 운동성, 파도 반복성, 파도 필압, 파도 위치, 별 위치, 별 크기, 별 수)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도 필압과 별 크기에서 성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파도 필압에서 성별(x²=6.542, p<.05)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파도를 약하게 그린 경우는 남자가 25.4%이고 여자는 16.3%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하게 그린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파도를 보통으로 그린 경우는 남자가 49.2%이고 여자는 63.5%로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 파도를 보통으로 그린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보통으로 그린 경우가 57.6%로 가장 많았다.

별 크기에서도 성별(x²=4.608, p<.05)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을 크게 그린 경우, 남자가 73.2%이고 여자는 83.3%로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 별을 크게 그린

비율이 약간 더 높음을 알 수 있으며, 피험자 대부분이 별을 크게 그리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3. 남녀노인의 별-파도 그림 반응 특성에 따른 죽음불안

별-파도 그림의 반응 특성에 따라 노인의 죽음불안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먼저 살펴본 후, 남녀 성별로 나누어 각각 t-test와 일원변량분석을 하고 사후검증으로 Scheffé test를 실시한 결과, <표 7>~<표 9>와 같다.

노인의 죽음불안은 그림양식, 전체 조화성, 파도 반복성, 별 크기, 별 위치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하위 변인별로 살펴보면, 그림양식 변인에서는 죽음과정(F=4.729, 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요점양식 집단(M=2.78)이 회화양식 집단(M=2.45)보다 죽음과정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존재 상실(F=3.688, p<.05)과 죽음

<표 7> 노인의 별-파도 반응에 따른 죽음불안의 차이검정

N=307

변 인	구 분	N	죽음과정	존재상실	사후결과	전 체
			M(SD)	M(SD)	M(SD)	M(SD)
그림양식	요 점	226	2.78(.60)a	2.23(.55)	2.35(.59)	2.47(.48)
	회 화	41	2.45(.52)b	2.04(.50)	2.24(.57)	2.25(.46)
	감 정	23	2.51(.56)	1.94(.61)	2.219(.51)	2.22(.46)
	형 식	17	2.55(.62)	2.38(.61)	2.45(.69)	2.46(.58)
	F(t)값		4.729**	3.688*	.924	3.764*
전체조화성	조 화	46	2.20(.49)a	1.80(.44)a	2.00(.49)a	2.00(.43)a
	보 통	151	2.79(.54)b	2.26(.50)b	2.41(.60)b	2.50(.44)b
	부조화	109	2.79(.63)b	2.26(.61)b	2.35(.58)b	2.48(.50)b
	F(t)값		21.113***	14.251***	8.881***	22.049***
파도운동성	있 다	230	2.70(.59)	2.20(.56)	2.34(.57)	2.42(.47)
	없 다	75	2.70(.63)	2.18(.56)	2.32(.65)	2.41(.53)
	F(t)값		.095	.954	1.754	.138
파도 반복성	규 칙	88	2.53(.63)a	2.15(.49)	2.32(.58)	2.34(.50)
	불규칙	75	2.70(.57)	2.18(.61)	2.36(.53)	2.42(.49)
	없 다	144	2.80(.58)b	2.23(.57)	2.31(.63)	2.47(.48)
	F(t)값		5.581**	.530	.158	1.812
파도 필압	강하다	70	2.64(.54)	2.19(.52)	2.30(.55)	2.38(.46)
	보 통	175	2.72(.59)	2.23(.56)	2.38(.58)	2.45(.48)
	약하다	61	2.72(.70)	2.09(.60)	2.23(.64)	2.36(.53)
	F(t)값		.491	1.390	1.510	.926
파도 위치	왼 쪽	13	2.91(.43)	2.47(.45)	2.46(.61)	2.63(.25)
	중 앙	44	2.83(.66)	2.25(.66)	2.38(.64)	2.50(.54)
	오른쪽	16	2.52(.67)	2.06(.65)	2.37(.70)	2.31(.61)
	전체적	234	2.68(.59)	2.18(.53)	2.31(.57)	2.40(.48)
	F(t)값		1.765	1.588	.392	1.596
별 크기	크 다	245	2.71(.63)	2.21(.56)	2.35(.61)	2.43(.50)
	작 다	123	2.79(.47)	2.23(.52)	2.36(.54)	2.47(.42)
	F(t)값		9.936**	1.531	2.908	2.367
별 수	1~2개	125	2.75(.59)	2.19(.56)	2.32(.57)	2.43(.47)
	3~4개	108	2.73(.56)	2.24(.54)	2.38(.58)	2.46(.45)
	5개 이상	135	2.73(.58)	2.23(.55)	2.37(.60)	2.45(.51)
	F(t)값		.063	.277	.389	.092
별 위치	왼 쪽	59	2.72(.68)	2.17(.66)	2.24(.61)	2.40(.54)
	중 앙	141	2.78(.55)a	2.24(.55)	2.43(.57)	2.49(.45)
	오른쪽	35	2.70(.48)	2.14(.40)	2.33(.57)	2.40(.35)
	전체적	71	2.52(.64)b	2.15(.57)	2.20(.60)	2.30(.56)
	F(t)값		3.055*	.540	3.024*	2.395

1) *p<.05, **p<.01, ***p<.001

2) a, b : 사후검증결과로 문자가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불안전체($F=3.764,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집단 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 조화성 변인에서는 죽음과정($F=21.113,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조화 집단($M=2.20$)이 보통 집단

($M=2.79$)과 부조화 집단($M=2.79$)보다 죽음과정에 대한 두려움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존재 상실($F=14.251,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조화 집단($M=1.80$)이 보통 집단($M=2.26$)과 부조화 집단($M=2.26$)보다 존재상실에 대한

<표 8> 남자 노인의 별-파도그림 반응에 따른 죽음불안의 차이검정

N=307

변 인	구 분	N	죽음과정	존재상실	사후결과	전 체
			M(SD)	M(SD)	M(SD)	M(SD)
전체 조화성	조 화	21	2.19(.48)a	1.84(.42)a	2.02(.50)	2.01(.42)a
	보 통	65	2.71(.51)b	2.19(.51)b	2.28(.53)	2.41(.43)b
	부조화	41	2.65(.67)b	2.21(.60)b	2.35(.55)	2.41(.53)b
	F(t)값		6.953***	4.111*	2.723	6.309**
파도 필압	강하다	32	2.67(.51)	2.17(.53)	2.35(.48)a	2.40(.44)
	보 통	62	2.61(.55)	2.21(.54)	2.33(.52)	2.39(.47)
	약하다	32	2.51(.74)	1.96(.53)	2.03(.58)b	2.18(.51)
	F(t)값		.577	2.413	3.882*	2.283
파도 위치	왼 쪽	3	2.66(.16)	2.44(.58)	2.00(.01)	2.41(.20)
	중 앙	16	2.94(.52)	2.35(.53)	2.48(.48)	2.60(.41)
	오른쪽	10	2.31(.76)	2.00(.80)	2.25(.79)	2.18(.74)
	전체적	98	2.57(.57)	2.11(.51)	2.23(.52)	2.32(.46)
	F(t)값		2.765*	1.438	1.198	2.123

1) * $p<.05$, ** $p<.01$, *** $p<.001$

2) a, b : 사후검증결과로 문자가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표 9> 여자 노인의 별-파도그림 반응에 따른 죽음불안의 차이검정

N=307

변 인	구 분	N	죽음과정	존재상실	사후결과	전 체
			M(SD)	M(SD)	M(SD)	M(SD)
그림양식	요 점	133	2.86(.59)	2.25(.57)	2.37(.63)	2.51(.48)
	회 화	20	2.55(.62)	2.15(.58)	2.36(.57)	2.35(.53)
	감 정	14	2.44(.48)	1.98(.57)	2.33(.58)	2.24(.49)
	형 식	11	2.60(.62)	2.45(.57)	2.50(.68)	2.52(.55)
	F(t)값		3.691*	1.549	.161	1.670
전체조화성	조 화	25	2.21(.52)a	1.77(.46)a	1.99(.49)a	1.99(.45)a
	보 통	85	2.86(.55)b	2.31(.50)b	2.50(.63)b	2.55(.43)b
	부조화	67	2.87(.59)b	2.28(.62)b	2.35(.60)b	2.52(.48)b
	F(t)값		14.386***	10.067***	27.133***	16.102***
파도 반복성	규 칙	52	2.55(.67)a	2.14(.48)	2.34(.63)	2.34(.51)
	불규칙	35	2.72(.55)	2.24(.64)	2.45(.52)	2.47(.51)
	없 다	91	2.92(.54)b	2.27(.59)	2.37(.66)	2.54(.46)
	F(t)값		6.908***	.901	.326	2.712

1) * $p<.05$, ** $p<.01$, *** $p<.001$

2) a, b : 사후검증결과로 문자가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두려움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결과($F=8.881$,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조화 집단($M=2.00$)이 보통 집단($M=2.41$)과 부조화 집단($M=2.35$)보다 사후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죽음불안전체($F=22.049$,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조화 집단($M=2.00$)이 보통 집단($M=2.50$)과 부조화 집단($M=2.48$)보다 죽음불안에 대한 두려움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도 반복성에서는 죽음과정($F=5.581$, $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파도가 규칙적인 집단이 파도의 반복성이 없는 집단보다 죽음과정에 대한 두려움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별 크기에서는 죽음과정($F=9.936$,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별이 큰 집단($M=2.71$)이 작은 집단($M=2.79$)보다 죽음과정에 대한 두려움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별 위치에서는 죽음과정($F=3.055$,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전체적 집단($M=2.52$)이 중양 집단($M=2.78$)보다 죽음과정에 대한 두려움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결과($F=3.024,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집단 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남자노인의 죽음불안이 별-파도 그림의 반응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 노인의 죽음불안은 전체 조화성, 파도 필압, 파도 위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조화성 변인에서는 죽음과정($F=6.953,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조화 집단($M=2.19$)이 보통 집단($M=2.71$)과 부조화 집단($M=2.65$)보다 죽음과정에 대한 두려움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존재 상실($F=4.111,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조화 집단($M=1.84$)이 보통 집단($M=2.19$)과 부조화 집단($M=2.21$)보다 존재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죽음불안전체($F=6.309,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조화 집단($M=2.01$)이 보통 집단($M=2.41$)과 부조화 집단($M=2.41$)보다 죽음불안에 대한 두려움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도 필압 변인에서는 사후결과($F=3.882,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파도 필압이 강한 집단($M=2.33$)이 약한 집단($M=2.03$)보다 사후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도 위치에서는 죽음과정($F=2.765,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집단 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별-파도 그림의 반응 특성에 따른 여자노인의 죽음불안의 차이검증 결과는 <표 9>와 같다.<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자노인의 죽음불안은 그림 양식, 전체 조화성, 파도 반복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그림양식 변인에서는 죽음과정($F=3.691,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전체 조화성 변인에서는 죽음과정($F=14.386,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조화 집단($M=2.21$)이 보통 집단($M=2.86$)과 부조화 집단($M=2.87$)보다 죽음과정에 대한 두려움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존재 상실($F=10.067,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조화 집단($M=1.77$)이 보통 집단($M=2.31$)과 부조화 집단($M=2.28$)보다 존재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결과($F=27.133,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조화 집단($M=1.99$)이 보통 집단($M=2.50$)과 부조화 집단($M=2.35$)보다 사후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죽음불안전체($F=16.102,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조화 집단($M=1.99$)이 보통 집단($M=2.55$)과 부조화 집단($M=2.52$)보다 죽음불안에 대한 두려움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도 반복성 변인에서는 죽음과정($F=6.908,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파도가 규칙적인 집단($M=2.55$)이 파도의 반복성이 없는 집단($M=2.92$)보다 죽음과정에 대한 두려움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별-파도 그림검사와 죽음불안 검사를 실시하여, 별-파도 그림과 죽음불안의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별-파도 그림 검사가 죽음불안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도구로서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노인대학,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경산시에 거주하는 신체적·인지적으로 손상이 없는 60세 이상의 노인 307명이며, 연구도구는 죽음불안 척도와 별-파도 그림검사이며, 자료분석은 빈도분석, 교차분석, t검정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고, 사후검증으로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죽음불안 수준은 4점 만점에 2.42점으로 보통 정도이며, 하위영역별로 보면 자아의 상실, 정체감의 상실로 인한 자기존재가 상실되는 두려움에 대한 존재상실이나 죽은 후에 일어나는 사랑하는 이와 이별이나 재산에 대한 염려, 아쉬움, 사후의 징벌 등 사후결과에 대한 두려움보다 죽어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불안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와 같은 결과는 죽음불안이 2.43으로 나타난 오미나(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노인들이 죽음에 직면해 있고, 주위 사람들의 죽음과정을 통해 죽음불안을 체험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소멸되거나 죽은 후에 가져오게 되는 상실에 대해서는 비교적 수용적인 태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죽음과정에 대한 불안이 다른 하위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죽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체적인 고통, 경제적 부담감, 사회로부터의 격리, 소외, 수치심, 신체적-정신적 기능상실, 타인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존재상실과 사후결과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죽음과정과 죽음불안 전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죽음과정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죽어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신체적인 고통, 사회로부터의 격리, 소외, 수치심, 신체적-정신적 기능상실, 의식과 자제력의 상실, 타인에게 의존-버림받는데 대한 공포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죽음불안을 전체적으로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관련선행연구(서혜경, 1987; 오미나, 2002; Cole, 1978-79; Leming, 1979; Lester, 1990; Ray, 1974)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죽음에 대해 보다 많이 생각하고 죽음에 대한 불안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함을 알 수 있다.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죽음불안이 높게 나타난 이 같은 연구결과는 여성이 사회화과정에서 습득한 의존성과 종속성이 죽음과 같은 위기 사건에 대한 방어능력을 약화시킨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는 연구결과(조지연, 1989)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타인의 슬픔에 대해 그리고 사후 신체에 대한 경로나 임종의 고통 등에 보다 더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남성들은 계획이나 사업이 미결되는 상태에 대해 보다 불안해한다고 밝힌 연구결과(Diggory & Rothman, 1969)와도 일맥상통한다.

둘째, 별-파도 그림반응 특성에 있어서 먼저, 그림양식의 경우 요점양식이 7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요점양식은 이성적으로 기능하는 사람으로 지시에 따라 단순하게 별과 파도만을 그리는 사람이다. 본 연구에서 요점양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노인들이 주관적, 실존적, 감정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지 않은 채 다만 주어진 주제에 순응하여 처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조화성에서는 보통이거나 조화를 이룬 경우가 64.4%로 나타나, 조사대상의 2/3 정도가 어느 정도 자아통합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파도는 생명의 근원으로, 리드미컬하게 흐르는 파도는 격한 감정을 나타내고, 약하고 원만한 파도는 감정적인 쇠약이나 우울 성향을 나타낸다(杉浦京子, 鈴木康明, 2000:56). 파도 운동성에서는 운동성이 있는 경우가 75.2%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의 대부분이 운동성을 나타내고 있어 생명적 요소인 감정이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파도 반복성에서는 반복성이 없는 경우가 46.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규칙적인 반복성이 있는 경우가 28.9%, 불규칙적인 반복성이 있는 경우가 24.3%로 나타나, 노인의 약 절반가량이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파도 필압에서는 보통으로 그린 경우가 57.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강하게 그린 경우가 22.4%, 약하게 그린 경우가 20%로 나타났다. 파도 위치에서는 파도를 전체적으로 그린 경우가 76.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앙에 그린 경우가 14.5%, 오른쪽에 그린 경우가 5.2%, 왼쪽에 그린 경우가 3.9%로 나타났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파도는 인간 내부의 생생한 요소를 표현한 것으로 감정, 무의식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도를 전체적으로 그리지 않고 부분적으로 그리는 것은 자신의 내면세계에 대한 자각이 부족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별 크기에서는 별을 크게 그린 경우는 79.2%, 작게 그린 경우가 20.8%로 크게 그린 경우가 작게 그린 경우의 4배나 많았으며, 별 수에서는 1~2개를 그린 경우가 40.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3~4개가 34.5%, 5개 이상 그린 경우가 24.8%로 나타났다. 별 위치에서는 별을 중앙에 그린 경우가 46.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별을 전체적으로 그린 경우가 23%, 별을 왼쪽에 그린 경우가 19.4%, 오른쪽에 그린 경우가 11.5%로 나타났다.

별-파도 그림에 있어서 공간의 상징적 의미(Rhyner, 1998)를 살펴보면, 왼쪽은 내향성과 과거로의 퇴행을 상징하며, 아래 영역은 무의식이 관련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원형적 상징으로서의 물과 바다를 들 수 있다. 또한 내성, 퇴행, 부인, 죽음의 영역이기도 하다. 오른쪽은 외향성과 미래를 뜻하며 아래 부분은 보다 의식적 측면을 나타내고 모친, 대지, 물질, 자연의 이미지와 관련된 것이 많고 안전과 기본적인 신뢰와 관련된 영역이기도 하다. 왼쪽 위 영역은 무의식과 관련된 영역으로 비개인적이고 집합적인 천상의 원형으로 영원한 초월성의 상징이다. 오른쪽 위 영역은 계획 및 보편적 의식과 관련되어 있으며, 자아의 투영을 상징한다(杉浦京子, 鈴木康明, 2000:18-20).

본 연구에서는 별을 중앙에 그린 경우가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노인들의 자아가 허약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중앙에 그려져 있는 별은 그린 사람의 의식 속에 방향성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과제가 존재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나치게 큰 별은 과장된 자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의식적인 갈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노인의 별-파도 그림반응 특성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변인은 파도 필압과 별 크기였다. 파도 필압에서는 파도를 약하게 그린 경우는 남자가 25.4%이고 여자는 16.3%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하게 그린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파도를 보통으로 그린 경우는 남자가 49.2%이고 여자는 63.5%로 나타났다.

별 크기에서는 별을 크게 그린 경우가 남자는 73.2%이고 여자는 83.3%로 여자가 남자보다 별을 크게 그린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피험자 대부분이 별을 크게 그리는 경향을 보였다. 별은 무지의 암흑세계에서 길을 안내하고 전진하려는 의지의 빛으로, 지성, 정신, 의지 등을 나타낸다. 별의 크기와 수는 지성, 정신, 의지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나 별의 크기와 수가 항상 정신력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림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그림을 그린 사람의 현실일 수도 있고 반대로 이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림에 대한 올바른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피험자가 그림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를 반드시 파악하여야만 한다.

셋째, 노인의 죽음불안은 그림양식, 전체 조화성, 파도

반복성, 별 크기, 별 위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 살펴보면, 먼저 그림양식 변인에 있어서 요점양식 집단이 회화양식 집단보다 죽음과정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존재 상실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집단 간의 구체적 차이는 볼 수 없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은 경우 풍부한 경험을 표현하려는 회화양식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연령이 높고 학력수준이 낮은 경우 지시에 따라 단순하게 표현하는 요점양식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높다고 밝힌 연구(이정임, 2005)와 부분적으로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의 이러한 주장은 나이가 들수록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여 처리하는 요점양식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죽음불안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 해준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조화성 변인에서는 조화 집단이 보통 집단과 부조화 집단보다 죽음과정과 존재상실, 사후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창조됨으로써 그림을 그린 사람의 감정이나 사고를 구체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림은 곧 그린 사람의 자아를 의미한다. 즉 별-파도 그림이 조화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그림을 그린 사람의 심리상태가 안정되어 불안이 더 적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파도 반복성 변인의 경우, 죽음과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파도가 규칙적인 집단이 파도의 반복성이 없는 집단보다 죽음과정에 대한 두려움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파도의 움직임이 불안정한 집단이 불안이 더 높게 나타난 이정임(2005)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동적 특성을 지닌 파도는 감정 상태를 나타내므로, 본 연구결과에서 파도가 규칙적으로 반복되게 그린 집단이 죽음불안이 낮게 나타난 것은 감정상태가 안정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별 크기변인에서는 별이 큰 집단이 작은 집단보다 죽음과정에 대한 두려움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별의 필적이 명확하고 별의 수가 많은 경우에 자존감이 높다고 밝힌 연구(이정임, 2005)와 부분적으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별의 크기와 수가 정신력의 정도를 의미하는 상징성 때문이다. 별 위치변인의 경우, 별을 전체적으로 그린 집단이 중앙에 그린 집단보다 죽음과정에 대한 두려움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결과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있었으나, 집단 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별은 의식을 상징하는 것으로, 별을 크게 그리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그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그린 것은 죽음과정에 대해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신적인 자원이 많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죽음과정에 대한 불안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별-파도 그림의 반응 특성에 따라 남녀노인의 죽음불안이 각각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남녀 성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남자 노인은 전체 조화성, 파도 필압, 파도 위치 변인에서 죽음불안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반면, 여자노인은 그림양식, 전체조화성, 파도 반복성 변인에서 차이를 보였다.

먼저, 남자노인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조화성 변인에서는 죽음과정, 존재상실, 죽음불안전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조화 집단이 보통 집단과 부조화 집단보다 죽음과정에 대한 두려움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도 필압 변인에서는 사후결과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파도 필압이 강한 집단이 약한 집단보다 사후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도 위치에서는 죽음과정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집단 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여자노인의 경우, 그림양식 변인에서는 죽음과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전체 조화성 변인에서는 죽음과정, 존재상실, 사후결과, 죽음불안전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조화 집단이 보통 집단과 부조화 집단보다 죽음과정, 존재상실, 사후결과, 죽음불안전체에 대한 두려움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도 반복성 변인에서는 죽음과정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파도가 규칙적인 집단이 파도의 반복성이 없는 집단보다 죽음과정에 대한 두려움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별-파도 그림의 반응 특성에 따른 노인의 죽음불안은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남녀 공히 전체조화성 변인에 있어서 죽음불안 차이를 보여 남녀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조화로우며 보이는 집단이 조화성이 보통이거나 조화롭지 못한 부조화 집단에 비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반적으로 더 적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자노인의 경우, 파도 필압이 보통인 집단이 파도 필압이 약한 집단에 비해 사후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은 반면, 여자노인의 경우, 파도가 반복성이 없는 집단이 파도가 규칙적인 집단에 비해 죽음과정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역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죽음불안 수준은 보통 정도이며, 자기존재가 상실되는 존재상실이나 사후결과에 대한 두려움보다 죽어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보다 죽음불안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죽음과정에 대한 불안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정을 상징하는 파도를 보통 수준의 필압으로 그린 비율이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감정 조절을 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성 및 정신력을 상징하는 별을 크게 그린 비율이 여자가 높게 나타나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의지가 강함을 나타낸 것이라 여겨진다.

셋째, 별-파도 그림에 있어서 노인의 죽음불안이 차이를 나타낸 변인은 전체조화성, 그림 양식, 파도 반복성, 별 크기, 별 위치로 나타났다. 별-파도 그림에서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집단이 보통이거나 조화롭지 못한 집단보다 죽음불안, 죽음과정, 존재상실, 사후결과에 대한 불안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양식에서 지시에 따라 별과 파도만 그린 요점양식 집단이 감정적인 경험을 표현한 회화 양식 집단보다 죽음과정에 대한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 및 의지를 상징하는 별을 작게 그린 집단이 크게 그린 집단보다 죽음과정에 대한 불안이 높고, 별을 중앙에 그린 집단이 전체적으로 그린 집단보다 죽음과정에 대한 불안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녀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집단이 보통 집단이나 부조화집단에 비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반적으로 더 적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향후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별-파도 그림검사는 피험자의 상태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피험자에게 심적 부담을 끼치지 않으면서 심리적인 문제와 대처방법을 정확히 끄집어낼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심리평가도구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별-파도 그림을 집단으로 실시함으로써 피험자의 그림에 대해 각각의 피험자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별-파도 그림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며, 연구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둘째, 별-파도 그림검사는 다른 투사검사와 마찬가지로 진단을 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함을 요하는 특성을 갖는데, 본 연구에서 그림을 해석함에 있어서 연구자의 주관적 견해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별-파도 그림 검사를 실시한 후 그림에 대해 피험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해석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의 성별이외의 건강상태나 연령, 교육수준 등과 같은 기타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연구대상을 일반 노인으로 한정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성 이외의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고 임종환자와 요양시설 노인 등 다양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타당하고 객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연구방법상에서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나 별-파도 검사가 노인의 죽음불안을 진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진단도구로서의 가능성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음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별-파도 그림검사의 특징 중 하나가 피험자의 내적표현을 도와 내담자의 세계에 대한 무의식적인 태도와 고유의 관계에 대해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별-파도그림검사는 노인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 및 여러 임상장면에서 적용가능한데, 예를 들면, 발달기능검사, 학교상담, 재활치료에서부터 심신증 환자에 이르기까지 널리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杉浦京子, 鈴木康明, 2000:1)는 사실을 감안할 때, 향후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그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노인, 죽음불안, 별-파도 그림, 반응특성

□ 접수일 : 2007년 07월 12일

□ 심사일 : 2007년 07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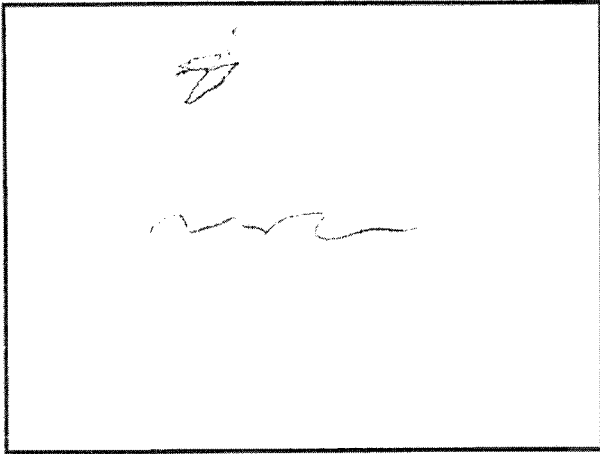
□ 심사완료일 : 2007년 08월 22일

【참 고 문 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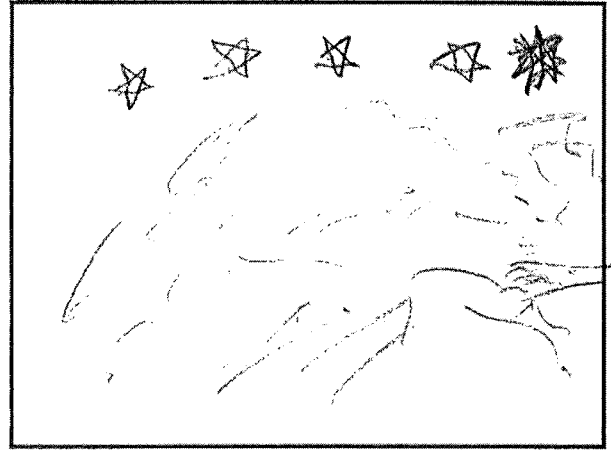
- 김태현·손양숙(1984).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연구. **한국노년학**, 4(1), 3-19.
- 박은경(1995). 죽음 불안 측정도구 개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현(1990). 입원한 노인환자의 자아존중감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찬희(2003). 노인의 죽음불안과 가족지지간의 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혜경(1987). 한미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연구. **한국노년학**, 7, 39-58.
- 서화정(2005).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사업개입전략: 노인자살의 영향요인분석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미나(2002). 재가노인과 시설노인의 자아존중감, 죽음불안 및 우울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미나·최외선(2005). 재가노인과 시설노인의 자아존중감, 죽음불안 및 우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3), 105-118.
- 유희옥(2004). 중노년기의 죽음불안태도·내세관·죽음 준비도를

-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이정(2004). 노인학습자를 위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임(2005). 실업자의 불안 및 자존감과 별-파도 그림의 반응 양식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현정(2000). 노인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과 죽음불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복희 · 정옥분 · 유가효(1998). 인간발달. 서울 교문사.
- 조지연(1989). 죽음에 대한 불안태도 연구-서울거주 청년기 · 장년기 · 노년기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선화(2004). 노인과 죽음에 대한 시론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7, 79-101. 신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최재건(2005). 노인의 종교 참여 및 사회적 지지가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채욱(2004). 고등학생의 우울과 별-파도 그림반응 특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04). 2004 고령자 통계.
- 杉浦京子(스기우라쿄코), 鈴木康明(스즈키야스아키)(2000). 星と波テスト入門. 川島書店.
- Cole, M. A.(1978-79). Sex and marital status differences in death anxiety. *Omega*, 9, 139-147.
- Diggory, J. C. & Rothman, D. Z.(1969). Values destroyed by death.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30, 11-17.
- Hooyman, R. N. & Asuman K. H.(2002). *Social Gerontology*, 6th(Ed.). Allyn and Bacon.
- Kalish, R. A.(1976). Some variables in death attitude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9, 137-145.
- Kastenbaum, R.(1992). *The psychology of death*(2nd ed.). New York : Springer.
- Leming, M.(1979). Religion and death: A test of thesis. *Omega*, 10(4), 347-363.
- Lester, D.(1990). The Collet-Lester fear of death scale: The original version and a reversion. *Death Studies*, 14, 451-468.
- McDonald, R. T. & Hilgendorf, W. A.(1986). Death imagery and death anxiet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2(1), 87-91.
- Ray, N.(1974). Death anxiety and death acceptance: preliminary approach. *Death Studies*, 9, 427-448.
- Templer, D. I.(1979). Death anxiety as related to depression and health of retired person. *Journal of Gerontology*, 26, 521-523.
- Thorson, J. A. & Powell, F. A.(1998). Age difference in death anxiety among African-American women. *Psychological Reports*, 83, 1173-1174.
- Wagner, K. D. & Lorion, R. P.(1984). Correlates of death anxiety in elderly person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0(5), 1237-1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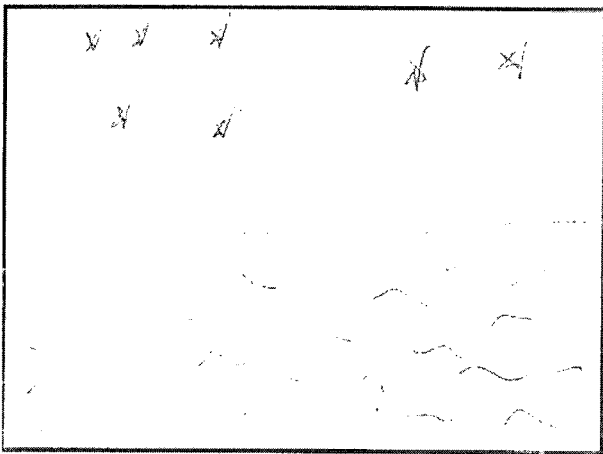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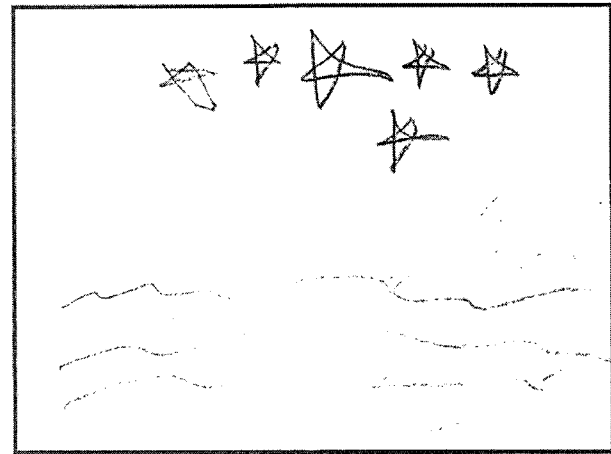
남 (83세), 죽음불안점수 ; 3.31



여 (65세), 죽음불안점수 ; 3.10



남 (64세), 죽음불안점수 ; 1.86



여 (73세), 죽음불안점수 ; 1.87

